

# AI·자율주행·클라우드 등 첨단기술 ‘집약’... “현실과 융합”

## 네이버, 메타버스 ‘아크버스’ 공개

현실과 동일한 가상세계 창조  
두 세계간 유기적으로 상호작용  
클라우드는 가상세계 플랫폼역  
스마트시티 등 현실사회에 적용

네이버가 자율주행·로봇·5G·인공지능(AI)·클라우드·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기술 생태계 ‘아크버스’를 구축하고 있다. 아크버스에서 현실공간과 디지털공간의 데이터 및 서비스가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석상욱 네이버랩스 대표는 24일 개막한 국내 최고이자 최대 규모인 개발자 콘퍼런스인 ‘데뷰(DEVVIEW) 2021’에서 “아크버스에는 AI, 로봇, 클라우드, 디지털 트윈 등 4개 분야가 담겨있다”며 “아크버스에서는 현실공간과 디지털공간의 데이터 및 서비스가 상호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아크버스, 현실과 가상공간 융합

석 대표는 “아크버스는 네이버 제페토와는 차이가 있는데, 현실세계와 똑같은 가상세계를 창조하며, 두 세계간의 상호 작용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며 “AI는 인식 이해를 최적화하고, 로봇은 현실 세계 물리적 매



석상욱 네이버랩스 대표가 24일 개막한 국내 최대 규모 개발자 콘퍼런스 ‘데뷰 2021’에서 키노트를 하고 있다. /네이버 캡처

개 역할을 하며, 클라우드는 가상세계의 플랫폼 역할을 주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기술들은 서비스 로봇, 자율주행 모빌리티, AR, VR 스마트빌딩, 스마트시티까지 다양한 형태로 사회에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체 개발한 실내의 디지털트윈 데이터 제작 솔루션 ‘어라이크(ALIKE)’와 빌딩과 로봇들의 두뇌 역할을 하는 아크(ARC) 시스템 등을 소개했다. 석 대표는 “아크 시스템은 세계 최초의 로봇 친화 빌딩인 네이버 제2사옥에서 첫 상용화를 앞뒀다”며 “각 분야의 엔지니어들과 기술을 융합해서 만드는 만큼 파트너십이 중요하며, 서울시, 인천시, 성남시 등과 CJ, 신세계, 소프트뱅크 등

산업 리딩 컴퍼니들과 흥미롭고 놀라운 성과들을 세상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더 글로벌해지는 네이버의 도전

사흘간 진행되는 올해 데뷰는 검색·AI·클라우드·로봇 등 네이버 개발자들의 최신 기술, 경험, 노하우가 담긴 역대 최대 116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이 날 콘퍼런스는 ‘세계로 향하는 네이버의 기술,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네이버 서비스의 글로벌화를 이끌어가는 각 기술 영역 책임리더 8명의 키노트로 개막을 알렸다. 키노트는 ▲현재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네이버의 기술과 서비스 ▲글로벌 스케일 인프라&클라우드 기술 ▲기술

로 도전하고 있는 새로운 미래 영역 세 파트로 나눠 진행됐다.

첫 파트에서는 성낙호 클로바 CIC 책임리더, 최재호 서치 CIC 책임리더, 박찬규 네이버웹툰 글로벌 CTO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 중인 네이버의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소개했다. 클로바와 검색을 맡고 있는 성, 최 두 리더는 글로벌 도전의 중심에 ‘하이퍼스케일 AI’가 있음을 시사했다.

성 리더는 클로바노트, 페이스사인 등 AI 서비스들이 일상화되는 사례를 소개했다. 성 리더는 “AI 하이퍼클로버 출시로 많은 우수한 연구자들이 새로 일하게 됐고, 최고의 대학들과 하이퍼스케일 AI 연구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며 “AI 품질의 제작 비용 개선에 기여하는 등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범위에서 우리 삶을 바꿔나갈 것이며, 글로벌 AI 벨트의 우수한 인재들과 함께 더 강력한 하이퍼클로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리더는 “네이버는 구글에서 부족한 상품정보 콘텐츠는 물론 콘텐츠 창작자와 SME(중소상공인) 등이 활동해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포맷을 생산하고 있다”며 “네이버에는 250억건의 콘텐츠, 300만명의 창작자, 2만8000명의 인플루언스, 46만명 이상의 SME 등이 성장하고 있고, AI

기술을 이용해 주제별 결과를 보여주는 스마트블록을 10월 출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색기술을 아우르는 새로운 AI 검색 브랜드로 ‘에어서치’를 소개했으며, 과거에는 정답을 찾는 검색이 많이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사용자 검색 의도가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네이버는 매출의 25%를 연구 개발에 투자할 정도로, 국내 모든 기술을 통틀어 가장 높은 연구 개발 투자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찬규 글로벌 CTO는 스토리테크 플랫폼으로 성장 중인 네이버웹툰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 많은 작가들과 독자들을 연결하기 위해 개발 중인 튜레이더, 웹툰 AI 페인터, WAT(WEBTOON Assisted Translation) 등 기술적 노력들을 소개했다.

키노트의 두 번째 파트는 김성관 Platform Labs 책임리더, 조성택 ETECH 책임리더, 최웅세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이 네이버 서비스들의 글로벌 진출을 뒷받침 중인 인프라와 클라우드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스케일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 파트는 네이버가 자체 기술력을 기반으로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 김호 네이버 웹툰 책임리더와 석상욱 네이버랩스 대표가 소개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 한발 물러선 中... 부동산 정책 일부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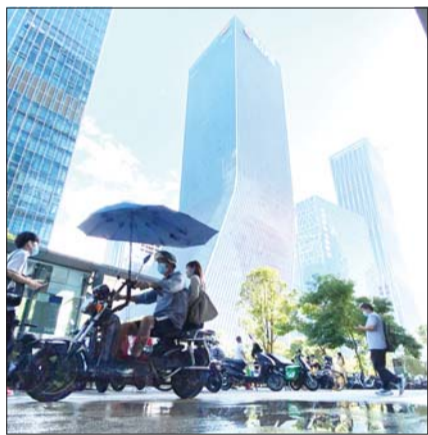
### ● 차이나 뉴스 & 리포트

부동산 시장 침체에 자금줄 풀어  
자금난 겪던 부동산 개발사 숨통  
일시적 완화, 정책 선회 놓고 촉각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은행들은 부동산 관련 대출을 확대했고, 관련 채권의 발행도 다시 시작되면서 자금난을 겪던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급한 불은 끄게 됐다.

앞으로 관건은 이번 부동산 규제완화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정책 방향을 아예 선회하는 것인지 여부다. 전문가들은 연착륙을 위해 자금줄을 일부 풀어줬을 뿐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는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24일 FT중문망에 따르면 중국의 지



중국 남부 선전에 있는 중국 부동산개발회사 형태(에버그란데) 그룹 본사. /뉴스시

난달 주택담보대출은 전년 대비 1% 증가했다.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다섯달 만이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채권 발행도 재개됐다. 이달 10일 이후 20개 이상의 개발업체들이 중국은행 간 채권시

장에서 288억위안(미화 45억달러)에 달하는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리도 비교적 낮다.

중국소상공인시티그룹은 지난주 단 5일 만에 10억위안 규모의 어음 발행을 승인 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이전에는 승인 절차가 한 달 이상 걸렸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 침체와 연쇄 디폴트(채무불이해) 우려로 규제 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산업은 중국 전체 경제 활동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관련 업계를 넘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부동산 분석가인 덩 하오즈는 “부동산 폭락은 전체 경제에 시스템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규제 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막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 기업 체감경기 주춤 공급 병목에 ‘발목’

이달 전산업 BSI 전월과 동일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다시 주춤하는 모양새다. 원자재가격 및 물류비 상승, 글로벌 공급병목 등이 이어지면서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86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BSI는 기업가의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전망을 조사한 지표다. 지수 100을 기준으로 밑돌면 부정적이라고 보는 것이 긍정적이라는 의견보다 더 많다는 얘기다.

한은 관계자는 “방역조치 완화 등에도 불구하고 원자재가격 및 물류비 상승, 글로벌 공급병목 등의 영향으로 전월과 동일한 86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업황 BSI는 제조업이 90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자·영상·통신장비가 3포인트 올랐지만 1차 금속, 화학물질·제품 등이 각각 5포인트, 4포인트 하락하면서다.

대기업은 2포인트 떨어졌지만 중소기업은 3포인트 뛰었다. 수출기업도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내수기업은 1포인트 오른 모습이다.

/백지연 기자 wdus0248@

## bhc그룹, 패밀리레스토랑 아웃백 인수

### >> 1면 ‘신성장동력·사업확장’서 계속

프레시지는 이번 합병을 통해 글로벌 트렌드인 건강식 제품까지 퍼블리싱하며 신규 사업군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건강, 특수식 전문기업 닥터키친과 합병하며 몸집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bhc그룹은 지난 7월 아웃백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인수 절차 업무를 진행해왔으며,

지난 18일 최종 절차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아웃백 인수를 통해 종합외식기업으로 몸집을 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인수 완료 후 bhc그룹은 아웃백 메뉴 개편과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주요 메뉴 24종에 한해 가격을 평균 6.2% 인상했다. 회사 측은 품질 유지를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bhc는 실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아웃백 인수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여기에 위드코로나로 전환함에 따라 외식 수요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고객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 1위인 교촌치킨은 닭가슴살 브랜드 ‘하임닭’의 모기업 인수를 추진한다. 앞서 적격 예비 인수 후보로 선정됐던 유력 업체들이 본입찰 참여를 포기해 교촌의 하임닭 인수가 유력해졌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은 최근 실시된 하임닭 운영사인 와이즈유엑스글로벌의 경영권 매각 본입

찰에 참여했다. 지난 9월 예비 입찰 당시 교촌을 포함, 롯데푸드와 에스푸드도 적격 예비 인수 후보로 선정됐지만, 본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식품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이익률이 크기 않은 데다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업계의 인수합병은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외식업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